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4, 1105-1121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박 윤 아† 신 민 섭 이 영 호
보라매병원 신경정신과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를 제작하여 타당화하고, 서로 다른 반응양식을 사용하는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그리고 각 반응양식이 우울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Ⅰ에서는 총 80문항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여 문항분석을 통해 문제해결 반응양식, 반추 반응양식, 기분회피 반응양식, 기분조절 반응양식의 4요인을 가지며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연구 Ⅱ에서는 294명의 대학생에게 제작한 질문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반추와 기분회피 반응양식은 우울과 정적 상관을, 문제해결과 기분조절 반응양식은 우울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군집분석 결과, 반추 ·기분회피 집단이 문제해결 ·기분조절 집단과 저 반응 집단에 비해 우울, 신체화, 불안, 강박 그리고 대인예민 증상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회귀분석 결과, 스트레스를 통제한 후에 반추 반응양식만이 우울 증상 변화량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 이 외의 반응양식은 우울 증상 변화량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주요어 :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 문제해결 반응양식, 반추 반응양식, 기분회피 반응양식, 기분조절 반응양식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박윤아 / 보라매병원 신경정신과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25 번지
Tel : 02-840-2835 / E-mail : eudocia@hanmail.net

우울 증상은 보통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되며, 우울 증상의 지속과 재발은 임상장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Smith & Weissman, 1992). 다양한 계기로 인해 우울 기분을 경험하지만, 비슷한 계기로 인해 우울 기분을 경험한다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가볍고 일시적인 우울 기분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은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우울 기분을 경험하는 등 우울 기분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는 개인차가 있다.

우울 기분의 정도와 지속 기간에 개인차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울 기분의 지속 기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데(김은정, 오경자, 1994), 몇몇 연구자들은 우울 기분의 정도와 지속기간의 차이를 우울 기분에 대한 개인의 반응 차이로 설명한다(Rippere, 1976, 1977; Teasdale, 1985). 정서 경험에 대한 반응양식은 안정적인 특질 변인으로서, 일관적인 경향이 있다는 많은 선행연구가 있다(Just & Alloy, 1997; Nolen-Hoeksema, Marrow, & Fredrickson, 1993; Pyszczynski & Greenberg, 1985; Wood, Saltzberg, Neale, Stone, & Rachmiel, 1990).

그 중 대표적인 것은 Nolen-Hoeksema(1991)의 우울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 이론으로, 사람들이 우울 기분에 대한 일관적인 반응양식을 가지고 있고, 그 반응양식이 우울 기분의 지속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울 기분을 유발시킨 원인에 관계없이 스트레스 경험에 뒤따르는 우울 기분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 우울 기분의 유지와 심화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우울기분에 대한 반응양식에는 반추 반응양식(Rumination Response Style)과 주의전환 반응양식(Distraction Response Style)이 있다. 반추 반응양식은 자신의 우울 증상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증상의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서, 우울 증상을 지속시키고 심화시키는 반응양식이다. 즉, 우울 증상(예, 얼마나 피곤한지), 우울증상의 원인(예, 왜 나는 우울할까), 우울 증상의 결과(예, 우울함을 계속 느끼면 하던 일을 끝마칠 수 없을 거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Nolen-Hoeksema, 1991). 주의전환 반응양식은 기분전환의 기능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우울 증상과 지속기간을 감소시키는 반응양식이다(Morrow & Nolen-Hoeksema, 1991). Nolen-Hoeksema는 우울한 기분이 들었을 때 우선 주의전환 반응을 취하여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용한 대처방식이라고 하였다(Nolen-Hoeksema, 1991, 1993).

Nolen-Hoeksema는 우울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 질문지(Response Style Questionnaire: RSQ; Nolen-Hoeksema & Morrow, 1991)를 개발하였고, 반응양식 질문지를 사용해서 각 반응양식과 우울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반응양식 질문지를 사용한 여러 연구 결과에서 동양과 서양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Sakamoto, 1998). Nolen-Hoeksema(1991)는 우울 증상에 대한 반응양식 중에서 반추 반응양식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사용하며, 이러한 경향은 우울증 환자 중 여자가 남자보다 2배 이상 많은 점을 설명해준다고 하였다. 반면 Nagura와 Hashimoto(1999)의 연구 그리고 Ito와 Agari(2000)의 연구에서는 반추 반응양식의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Eshun 등(1998)은 동서양에서 반추의 의미가 다르다고 하였다. 반추 반응양식이 어떤 문화에서는 역기능적인데 반해 다른 문화에서는 기능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Eshun, Chang, & Owusu, 1998). 우울한 기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우울한 기분을 증대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지만, 우울한 기분에서 주의를 전환하지 않고 우울 정서를 직면하고 경험하는 것은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Hunt, 1998). 후자의 관점에서 다음에 제시하는 연구들은 반추 반응양식과 구별되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반응양식이 존재함을 제안하였다.

Sakamoto, Kambara와 Tanno(2001)는 동서양에서 반추 반응양식의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Nolen-Hoeksema와 Morrow(1991)의 연구에서 반추 반응양식과 문제해결 반응양식 간에 상관을 보이지 않는데, 일본의 연구에서 반추 반응양식은 문제해결 반응양식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Sakamoto et al.(2001): $r(234)=0.31$, $p<0.001$, Nagura & Hashimoto (1999) : $r(655)=0.25$, $p<0.001$).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반추 반응양식이 문제해결을 이끌 가능성이 있으며, 동양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찾아 이를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반응양식으로도 사용된다고 하였다.

김진영(2000)은 반추적 반응양식 중에서 객관적이고 중성적으로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반응을 반추적 반응양식과 구별하여 반성적 반응양식이라고 하였다. 반성적 반응양식은 부정적 감정에 직면하여 우울의 원인과 우울한 기분을 야기하는 기저의 사고 과정을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반응양식이라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우울한 기분을 야기하는 원인이 있을 때 반추적인 반응양식을 가진 사람들과 반성적인 반응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초기에는 비슷하게 우울 기분을 느끼더라도 우울 기분이 지속되고 심화되는 정도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실험으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양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나는 동양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반추 반응양식과 구별되는 기능적인 반응양식을 문제해결 반응양식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반추 반응양식은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상태에 대한 생각을 함으로써 우울한 감정과 자동적 사고에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반응양식이다. 문제해결 반응양식은 우울한 기분에서 주의를 전환하지 않고 이를 직면하고 경험하되, 사회적응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찾아 이를 향상시키고자 구체적인 계획이나 해결책을 생각해보는 반응양식이다.

주의전환 반응양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의전환 반응양식이 우울 기분의 정도와 지속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실험연구에서 주의전환 반응양식은 우울 기분을 개선시켰다(Morrow & Nolen-Hoeksema, 1990). 그러나 현장연구에서는 우울 삽화의 과정을 예언하는 주의전환 반응양식의 역할이 감소했다(Nolen-Hoeksema & Morrow, 1993; Nolen-Hoeksema, Parker & Larson, 1994).

Just와 Alloy(1997)는 실험실 장면과 실생활에서 주의전환 반응이 불일치하는 연구결과를 설명하고자 했다. 반응양식 이론의 실험연구에서, 반추 반응양식과 주의전환 반응양식은 서로 양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Just와 Alloy의 연구에서는 주의전환 반응양식과 반추 반응양식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두 반응양식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주의전환 반응양식은 우울 지속기간을 예언하는 반추적이지 않은 반응양식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Schmaling, Dimidjian, Katon과 Sullivan(2002)의 연구에서는 반응양식 이론과 반대로, 반추 반응양식과 주의전환 반응양식 간에 정적 상관

을 보였고, 주의전환 반응양식을 사용할수록 치료 후에 더 우울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론과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를 주의전환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도구가 수동적인 주의전환 반응과 능동적인 주의전환 반응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반응양식도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점을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한 기분에 대한 주의전환 반응양식을 기분조절 반응양식과 기분회피 반응양식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기분조절 반응양식은 우선 우울한 기분을 해결한 뒤에 스트레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반응으로, 능동적으로 우울한 기분을 조절하는 반응양식이다. 기분회피 반응양식은 기피, 고립, 철회를 증가시키는 반응양식으로, 수동적인 주의전환 반응양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Nolen-Hoeksema의 반응양식 이론을 바탕으로 우울 기분을 지속시키고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우울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Nolen-Hoeksema 이론의 반추 반응양식과 주의전환 반응양식을 각각 기능적· 역기능적인 면으로 구별하여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 질문지(Response Style Questionnaire: RSQ; Nolen-Hoeksema)를 수정·보완하고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제작하고자 한다. 또한, 기능적이거나 역기능적 반응양식을 사용하는 집단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고, 각 반응양식들이 여러 정신 병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반응양식이 우울 증상의 지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Ⅰ.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의 제작

기존의 질문지에서 문항을 선정하여 예비 질문지를 제작한 뒤 문항분석을 통해 연구에 적합한 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방 법

문항수집 및 제작과정

예비문항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울 기분에 대한 네 가지 반응양식인 문제해결 반응양식, 반추 반응양식, 기분회피 반응양식, 기분조절 반응양식을 이전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서론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반추 반응양식 중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반응양식을 문제해결 반응양식으로, 주의전환 반응양식 중에서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반응양식을 기분회피 반응양식으로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예비문항은 Nolen-Hoeksema(1991)의 반응양식 질문지(Response Style Questionnaire: RSQ), 김진영(2000)의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 질문지(Response to Depressed mood Questionnaire: RDQ), Barber와 Derubeis(1992)의 반응양식 평정지침(Ways of Responding rater's Guide) 및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기초조사에서 총 80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서울과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19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22.89세(표준편차 4.61세)로, 남자의 평균 연령은 24.00세(표준편차 3.24 세),

여자의 평균 연령은 22.65세(표준편차 4.83세)였다.

결과 및 논의

문항 선정 과정에서는 각 요인별로 요인에 속한 20문항에 대해 요인 수를 1개로 지정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각 문항들의 요인부하량과 문항상관값, 신뢰도를 고려하여 각 요인별로 10문항씩 선정하였다. 이렇게 최종 선정된 40문항에 대해 요인수를 4개로 지정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네 가지 요인에 의한 설명변량은 49.67%였으며,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문제해결 반응양식 요인이 .89, 반추 반응양식 요인이 .88, 기분회피 반응양식 요인이 .75, 기분조절 반응양식 요인이 .87이었고, 전체 내적 합치도는 .81이었다.

각 반응양식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 문제해결 반응양식과 기분조절 반응양식은 정적 상관을(r=.54, p<.01), 반추 반응양식과 기분회피 반응양식은 정적 상관을(r=.34, p<.01), 기분회피 반응양식과 기분조절 반응양식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r=.17, p<.05). 반추 반응양식과 기분조절 반응양식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r=-20, p<.01).

연구 II.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I 에서 제작한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하위 척도별로 문항-하위 척도 상관계수,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Beck 우울 질문지(BDI), 간이 정신 진단 검사(SCL-90-R), 반응양식 질문지(RSQ)와 상관분석을 하였다.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알아보았고, 각 반응양식이 우울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과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94명(남 80명, 여 21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22.69세(표준편차 4.73세)로, 남자의 평균 연령은 23.86세(표준편차 5.28세), 여자 평균 연령은 22.25세(표준편차 4.44세)였다.

평가도구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Depressed Mood Response style Questionnaire: DMRQ)

우울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가 연구 I 에서 제작한 척도로서, 총 40문항이며 5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문제해결 반응양식, 반추 반응양식, 기분회피 반응양식과 기분조절 반응양식의 네 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요인분석에 의한 네 가지 요인의 설명변량은 49.67%였으며, 내적합치도는 .81이었다.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우울척도는 Beck, Ward, Mendelsin, Mock

및 Erbaugh(1961)가 개발한 우울증상에 대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다. 이 척도는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및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괄하여, 우울증의 심각도를 측정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5이었다.

간이 정신 진단 검사(SCL-90-R)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평가하기 위하여 Derogatis(1977)에 의해 개발된 간이정신진단 검사(Symptom Ckecklist)의 한국판으로, 표준화된 번안척도(김재환, 김광일, 원호택, 1984)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집단에서 드문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의 4개 증상을 측정하는 척도를 제외하고 빈번하게 나타나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 우울, 불안의 5개 증상을 측정하는 54개 문항으로 구성된 축소형을 사용하였다(Goofhart, 1985).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신체화 α=.90, 강박증 α=.85, 대인예민 α=.86, 우울 α=.93, 불안 α=.90이었고, 5개 척도의 전체 점수의 내적합치도(α)는 .97이었다.

반응양식 질문지 (Response Style Questionnaire: RSQ)

Nolen-Hoeksema가 우울한 상태에 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양식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로서, 총 71문항이며 4점 척도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반추 반응양식, 주의전환 반응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은정과 오경자(199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요인 α=.89, 우울 감정에 초점 요인 α=.83, 문제해결 요인 α=.73, 주의전환 요인 α=86, 위험행동 요인 α=.58이었다.

스트레스 사건경험 질문지

이평숙(1984)의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이영호(1993)가 대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부정적인 사건들만으로 질문지를 재구성한 것이다. 대학생의 부정적인 스트레스 사건을 측정하는 질문지로써, 총 50문항에 대한 최근 2개월간의 경험 여부를 진위형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 재검사 사이 3주간의 경험 여부를 진위형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연구 절차

1차 조사에서는 제작한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와 BDI, SCL-90-R, RSQ를 함께 실시하였다. 1차 조사 3주 후에 1차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제작한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와 BDI, SCL-90-R, 스트레스 사건 경험 질문지를 함께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

첫째,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의 4요인 모형에 수집된 자료가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고자 AMOS 4.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형을 찾고자 4요인 모형 외 몇 개의 대안모형도 함께 탐색해보았다. AMOS에서 설정한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고자 x^2검증과 홍세희(2000)가 제안한 여러 가지 부합도 지수들 중 근사평균오차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표준부합지수(Non- Normed Fit Index:

NNFI, 또는 TLI),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비교하였다.

둘째,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의 하위요인과 다른 척도들 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SPSS WINDOWS 11.0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우울 기분 반응양식의 하위요인이 피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BDI 및 SCL-90-R의 하위 척도가 각 집단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WINDOWS 11.0을 사용하였다.

넷째, 1차 조사 시 우울 수준과 2차 조사 시 우울 수준의 차이를 우울 변화량으로 보고,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의 스트레스 정도를 통제한 뒤, 반응양식이 우울 변화량을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SPSS WINDOWS 11.0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의 신뢰도

요인 1(문제해결 반응양식)의 경우,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56-.71의 범위를 보였고 내적 합치도 계수는 .85이었다. 요인 2(반추 반응양식)의 경우,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58-.75의 범위를 보였고 내적 합치도 계수는 .84이었다. 요인 3(기분회피 반응양식)의 경우,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44-.76의 범위를 보였고 내적 합치도 계수는 .74이었다. 요인 4(기분조절 반응양식)의 경우, 문항-총점 상관계수가 .59-.81의 범위를 보였고 내적 합치도 계수는 .89이었다. 3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요인 1이 .93, 요인 2가 .91, 요인 3이 .83, 요인 4가 .94이었다. 네 가지 요인의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는 내적으로 일관적이며 시간적으로 안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의 타당도

요인구조와 모형의 부합도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의 요인구조에 수집된 자료가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AMOS 4.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척도의 요인구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구조를 찾기 위하여 대안모형들도 함께 검토하였으며, 각 모형의 경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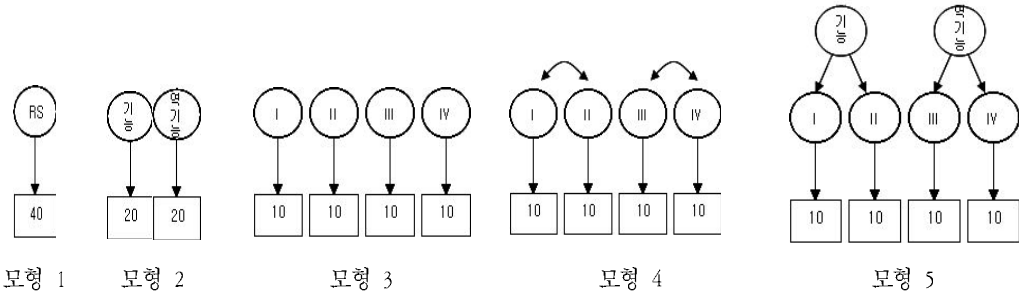

그림 1.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DMRQ) 각 모형의 경로도(주, 사각형 안의 숫자는 문항의 개수임
I : 문제해결, II: 기분조절, III: 기분회피, IV: 반추 반응양식, RS: 반응양식

표 1. DMRQ 각 모형의 부합도 지수

모형	x^2	df	RMSEA	TLI	CFI
모형 1	1969.654	653	0.084	0.627	0.688
모형 2	1464.822	650	0.066	0.768	0.807
모형 3	1066.598	650	0.048	0.881	0.901
모형 4	985.001	648	0.043	0.904	0.920
모형 5	1464.966	650	0.066	0.768	0.807

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각 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잔차간 상관을 포함시킨 모형들의 부합도 지수를 살펴본 결과, 모형 1은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가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했으나 RMSEA값이 .08보다 커서 부합도가 좋지 않은 반면, 모형 2와 모형 5는 RESEA값이 .08미만으로 괜찮은 부합도를 보이고 있고, 모형 3과 모형 4는 RMSEA값이 .05미만으로 좋은 부합도를 보이고 있어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를 4요인 구조로 가정한 본 연구의 요인 모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요인들 간에 상관을 가정하지 않은 모형 3보다 상관을 가정한 모형 4가 RMSEA, TLI, CFI 값의 비교에서 본 연구의 자료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져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는 상관을 가정한 모형 4가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MRQ와 BDI, SCL-90-R, RSQ 점수 간의 상관관계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DMRQ)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울을 측정하는 Beck의 우울질문지(BDI),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질문지(RSQ)의 하위요인 간에 상관을 구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문제해결 반응양식과 기분조절 반응양식은 우울(BDI, SCL-90-R)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반추 반응양식과 기분회피 반응양식은 우울(BDI, SCL-90-R)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문제해결 반응양식은 우울 감정에 초점, 문제해결, 주의전환 요인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SCL-90-R의 강박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반추 반응양식은 부정적인 면을 생각, 우울 감정에 초점, 위험행동, SCL-90-R의 신체화, 불안, 강박, 대인예민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문제해결, 주의전환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기분회피 반응양식은 부정적인 면을 생각, 위험행동, SCL-90-R의 신체화, 불안, 강박, 대인예민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기분조절 반응양식은 우울 감정에 초점, 문제해결, 주의전환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적인 면을 생각, SCL-90-R의 신체화, 불안, 강박, 대인예민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각 반응양식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응양식임을 알 수 있다.

군집분석을 통한 집단 분류와 각각의 집단 간의 차이 비교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가 피험자들에게

표 2. DMRQ와 BDI, SCL-90-R, RSQ 점수간의 상관계수

상관질문지	DMRQ	문제해결 반응양식	반추 반응양식	기분회피 반응양식	기분조절 반응양식
우울(BDI)		-.227**	.453**	.218**	-.309**
반응양식 질문지 (RSQ)	부정적인 면을 생각	.103	.782**	.342**	-.126*
	우울 감정에 초점	.569**	.488**	.106	.181**
	문제해결	.785**	-.174**	.029	.534**
	주의전환	.371**	-.245**	-.015	.784**
	위험행동	.097	.237**	.206**	-.024
간이정신 진단검사 (SCL-90-R)	신체화	-.092	.353**	.124*	-.188**
	불안	-.069	.484**	.177**	-.178**
	강박	-.116*	.464**	.191**	-.190**
	우울	-.156**	.594**	.251**	-.283**
	대인예민	-.045	.543**	.198**	-.188**

*$p < .05$, **$p < .01$

서 나타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method of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5개의 군집이 묶였으나, 계수(coefficient)를 살펴본 결과 군집 수를 3개, 4개, 5개로 각각 지정한 후 비계층적 군집분석(non-hierarchical method of 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표준화 점수를 살펴본 결과, 3개의 군집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개 군집의 표준화 점수와 변량분석 값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3개의 군집은 다음과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데, 군집 1은 반응양식 점수가 모두 낮은 집단(저 반응 집단), 군집 2는 기분조절 반응양식과 문제해결 반응양식 점수가 높은 집단(기분조절·문제해결 집단), 군집 3은 기분회피 반응양식과 반추 반응양식 점수

표 3. 각 반응양식 Z점수의 비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군집 1	군집 2	군집 3	*F* 값	유의도	사후검증
기분회피	-.561	-.120	.655	54.166	.000	3>2>1
반추	-.657	-.425	.946	145.131	.000	3>1=2
기분조절	-.371	.987	-.484	124.556	.000	2>1=3
문제해결	-.459	.853	-.215	76.231	.000	2>1=3

표 4. 집단 간 차이를 위한 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변량원		*SS*	*MS*	*df*	*F*	사후검증 결과 [1)]
우울(BDI)		1263.01	631.50	2	20.09 ***	3>1=2
SCL-90-R	신체화	11.15	5.58	2	12.77 ***	3>1=2
	불안	16.39	8.19	2	18.78 ***	3>1=2
	강박	17.73	8.87	2	21.33 ***	3>1=2
	우울	38.11	19.06	2	39.41 ***	3>1=2
	대인예민	21.52	10.76	2	24.52 ***	3>1=2

*** $p < .001$

1. 저반응 집단, 2. 문제해결·기분조절 집단, 3. 기분회피·반추 집단.

'>'표시는 .05수준에서 차이가 유의미함을 나타냄. '='표시는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음을 나타냄. 1) 사후검증은 Scheffe 방법을 사용하였음

가 높은 집단(기분회피·반추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세 집단이 부적응과 어떤 양상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변량분석 및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고, 표 4에 제시하였다.

집단간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BDI 및 SCL-90-R의 하위 척도에서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기분회피·반추 집단'은 '기분조절·문제해결 집단'과 '저반응 집단'에 비해 BDI, SCL-90-R의 신체화, 불안, 강박, 우울, 대인예민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기분조절·문제해결 집단'과 '저 반응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세 집단 중 '기분조절·문제해결 집단'이 우울 수준이 가장 낮고, 심리적인 고통도 가장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해결 반응양식과 기분조절 반응양식의 적응적인 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분조절·문제해결 집단'과 '저 반응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반응양식을 덜 사용하는 저 반응 집단도 우울 수준이 낮고, 심리적인 고통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분회피·반추 집단'은 우울 수준이 높고, 심리적인 고통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추 반응양식과 기분회피 반응양식의 부적응적인 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반응양식이 우울 기분에 미치는 영향

반응양식이 우울 기분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하였다. 2차 조사 시 스트레스 정도를 통제한 후, 1차 조사 시 우울 점수와 2차 조사 시 우울 점수의 차이인 우울 변화량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2차 조사 시 반응양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였다.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여 우울 변화량이 반응양식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되는지를 알아보았다.

BDI로 측정한 우울 점수의 회귀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2차 조사 시 스트레스의 영향을, $F(1,207)=6.57$, $p<.05$, 통제하고, 반응

표 5. 반응양식이 우울 증상(BDI)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R^2 변화량	F 변화량
우울(BDI) 변화량	스트레스	.14	.03	.03	6.57*
	반추 반응양식	.20	.06	.03	6.12*
	기분회피 반응양식	-.09	.07	.01	1.85
	기분조절 반응양식	-.06	.07	.001	0.22
	문제해결 반응양식	.04	.07	.001	0.30

*p < .05

표 6. 반응양식이 우울 증상(SCL-90-R)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R^2 변화량	F 변화량
우울 (SCL-90-R) 변화량	스트레스	.23	.08	.08	14.48***
	반추 반응양식	.24	.11	.03	4.99*
	기분회피 반응양식	-.14	.12	.02	2.95
	문제해결 반응양식	.04	.13	.003	0.49
	기분조절 반응양식	.02	.13	.000	0.04

*p < .05, ***p < .001

양식이 우울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2차 조사 시 스트레스 정도와 반추 반응양식은 우울 변화량에 대해 약 6%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206)=6.42$, $p<.01$. 반추 반응양식이 우울 변화량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은, R^2 변화량=.03, $F(1,206)=6.12$, $p<.05$, 유의미하였으며, 반추 반응양식이 우울 변화량을 3%정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조사 시 스트레스 정도를 통제하고, 반추 반응양식이 우울 변화량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임을 제안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기분회피, 기분조절, 문제해결 반응양식은 우울 변화량을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SCL-90-R로 측정한 우울 점수의 회귀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2차 조사 시 스트레스의 영향을, $F(1,207)=14.48$, $p<.001$, 통제하고, 반응양식이 우울 변화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2차 조사 시 스트레스 정도와 반추 반응양식은 우울 변화량에 대해 약 11%의 변량을 설명하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2,206)=9.91$, $p<.001$. 반추 반응양식이 우울 변화량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변량은, R^2 변화량=.03, $F(1,206)=4.99$, $p<.05$, 유의미하였으며, 반추 반응양식이 우울 변화량을 3%정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조사 시 스트레스 정도를 통제하고, 반추 반응양식이 우울 변화량에 대한 유의미한 예측변인임을 제안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기분회피, 기분조절, 문제해결 반응양식은 우울 변화량을 추가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반응양식이 우울 이외의 신체화, 불안, 강박, 대인예민 증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차 조사 시 신체화, 불안, 강박, 대인예민 증상 정도와 2차 조사 시 신체화, 불안, 강박, 대인예민 증상 정도의 차이를 변화량으로 보고, 2차 조사 시 스트레스 정도와 반응양식에 대하여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차 조사 시 스트레스 정도를 통제한 후 반응양식에 의한 증상 변화량에 대한 설명량을 추정하였다. 반응양식이 증상 변화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반응양식이 신체화, 불안, 강박, 대인예민 증상의 변화량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인이 아님을 제안하는 결과이다.

논 의

연구 Ⅰ에서는, Nolen-Hoeksema(1991)의 반응양식 질문지(RSQ), 김진영(2000)의 우울한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 질문지(RDQ), Barber와 DeRubeis (1992)의 반응양식 평정지침을 바탕으로,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DMRQ)를 제작하였다. DMRQ에서 중요한 부분은 Nolen-Hoeksema의 반응양식이론에서 제안한 자신의 우울 증상에 초점을 두고 그 증상이 의미하는 바에 주의를 기울이는 '반추 반응양식'과, 사회적 적응을 위해 자신의 잘못을 찾아 변화시키고자 하는 '문제해결 반응양식'을 구분하였다. 또한 DMRQ에서는 Nolen-Hoeksema의 반응양식이론에서 기분전환의 기능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활동에 초점을 두는 '주의전환 반응'을 두 가지 반응양식으로 구분하였다. 수동적인 기분전환의 기능을 하며 기피, 고립, 철회를 증가시키는 반응양식을 '기분회피 반응양식'으로, 우울한 기분을 해결한 뒤에 스트레스에 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는 반응양식을 '기분조절 반응양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결과는 반추 반응양식, 문제해결 반응양식, 기분조절 반응양식, 기분회피 반응양식이 각각 구별되는 개념임을 보여주었다. DMRQ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대안모형들을 함께 검토한 결과, 4요인 모형 중 반추 반응양식과 기분회피 반응양식 간에 그리고 문제해결 반응양식과 기분조절 반응양식 간에 상관을 가정한 4요인 모형이 자료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요인모델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문제해결 반응양식과 반추 반응양식을 살펴보면, 우울 감정에 초점을 두는 면에서는 두 반응양식 모두 상관이 있으나 반추 반응양식은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요인과 상관이 있고, 문제해결 반응양식 요인은 문제해결 요인과 상관이 있었다.

기분회피 반응양식과 기분조절 반응양식을 살펴보면, 우울(BDI), SCL-90-R,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요인, 위험행동 요인에서 기분회피 반응양식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기분조절 반응양식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기분조절 반응양식은 RSQ의 문제해결요인과 주의전환 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문제해결 반응양식과 기분조절 반응양식을 살펴보면, 두 반응양식은 RSQ의 우울 감정에 초점을 두는 요인, 문제해결 요인, 주의전환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SCL-

90-R의 각 하위척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두 반응양식의 차이는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요인에서 나타나는데, 기분조절 반응양식은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요인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반추 반응양식과 기분회피 반응양식을 살펴보면, 두 반응양식은 SCL-90-R의 각 하위척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부정적인 면을 생각하는 요인과 위험행동 요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하지만, 반추 반응양식은 주의전환 요인과 문제해결 요인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우울 감정에 초점을 두는 요인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군집분석의 결과, 기분회피·반추 집단은 우울 수준이 높고, 심리적인 고통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추 반응양식과 기분회피 반응양식의 부적응적인 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해결·기분조절 집단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가장 낮고, 심리적인 고통도 가장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제해결 반응양식과 기분조절 반응양식의 적응적인 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저반응 집단은 기분조절·문제해결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기분회피·반추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저반응 집단도 기분회피·반추 집단에 비해 우울 수준이 낮고, 심리적인 고통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Rippere의 연구(1977)와 Beckham와 Adams의 연구(1984)에서 대학생 집단 중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더 다양하고 또 양적으로도 많은 행동을 시도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반응양식을 덜 사용하는 집단의 우울 수준이 낮게 나온 결과는,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보다 반응양식을 덜 사용한다는 점과 관련 있어 보인다.

제작한 우울 기분 반응양식 질문지(DMRQ)를 바탕으로 각각의 반응양식이 우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BDI로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와 반추 반응양식이 우울 변화량을 6%정도 설명해주었고, 스트레스를 통제한 후에 반추 반응양식이 추가적으로 3%정도 설명해주었다. SCL-90 -R로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와 반추 반응양식이 우울 변화량을 11%정도 설명해주었고, 스트레스를 통제한 후에 반추 반응양식이 추가적으로 3%정도 설명해주었다. 이는 반추 반응양식을 사용할 때 3주 후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문제해결, 기분조절, 기분회피 반응양식은 우울 변화량을 유의미하게 설명해주지 못하였다. 또한, 간이정신진단검사(SCL -90-R)의 신체화, 불안, 강박, 대인예민에 있어서도 스트레스를 통제한 후 각 반응양식이 변화량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는 값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반응양식이 신체화, 불안, 강박, 대인예민과 같은 증상의 변화량을 설명해주지 못하며, 반추 반응양식이 우울에 있어서만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반응양식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 기분에 대한 반응양식을 반추 반응양식과 주의전환 반응양식으로 나누어 살펴본 Nolen-Hoeksema의 반응양식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반추 반응양식과 구별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문제해결 반응양식과, 주의전환 반응양식과 구별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기분회피 반응양식을 제안하고 입증하였다. 둘째, 우울 기분에 대한 문제해결 반응양식을 제안하

며 문제해결 반응양식이 우울, SCL-90 -R의 하위요인과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자신에 대한 내성, 반성경향이 우울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반추 반응양식과 기분회피 반응양식을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문제해결 반응양식과 기분조절 반응양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울 수준도 낮고, 심리적인 고통도 덜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반응양식 중 문제해결 반응양식과 기분조절 반응양식의 기능적인 역할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인지에 초점을 둔 접근과는 달리 보다 행동적이고 현상학적인 접근양식을 측정하는 반응양식을 제안하였으며, 우울 증상 자체와는 개념적으로 독립된 변인으로서 우울 증상의 지속을 예측해 줄 수 있는 변인인 반응양식의 영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하는 반응양식과 관련된 부정적 결과가 실제 부정적 결과를 야기하는 것인지 혹은 단순히 그런 식으로 지각하는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 집단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비임상적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임상환자 집단의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우울과 관련된 장기 추적 연구는 국내에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우울증상의 지속기제에 관한 장기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각 반응양식이 우울증상 지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장기적, 단기적 관점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김은정, 오경자 (1994). 우울증상의 지속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및 행동요인들: 3개월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 임상. 13. 1-19.

김진영 (2000). 우울한 기분에 대한 두 가지 내부초점적 반응양식: 반추적 반응양식 대 반성적 반응양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 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Barber, J. P., & DeRubies, R. J. (1992). The ways of responding: A scale to assess compensatory skills taught in cognitive therapy. *Behavioral Assessment, 14,* 93-115.

Eshun, S., Chang, E. C., & Owusu, V. (1998). Cultural and gender differences in responses to depressive mood: A study of college students in Ghana and the U. S. A.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581-583.

Ernest, E. B. (1984). Coping behavior in depression: Report on a new scal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2,* 71-75.

Hunt, M. G. (1998). The only way out is

through: Emotional processing and recovery after a depressing life even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361-384.

Ito, T., & Agari, I. (2000). The development of negative rumination scale and it's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Proceedings of the 13th Annual Meeting of the Japanese Association of Health Psychology,* 302-303.

Just, N., & Alloy, L. B. (1997). The responses styles theory of depression: Tests and an extension of the theor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221-229.

Morrow, J., & Nolen Hoeksema, S. (1990). Effects of responses to depression on the remediation of depress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519-527.

Nagura, Y., & Hashimoto, T. (1999). Effects of ruminative response style on mental maladjustment. *The Japanese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2,* 1-11.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 y, 100, 569-582.

Nolen-Hoeksema, S., & Morrow, J. (1991). A prospective study of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after a natural disaster: The 1989 Loma Priera earthquak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115-121.

Nolen-Hoeksema, S., & Morrow, J. (1993). Effects of rumination and distraction on naturally occurring depressed moods. *Cognition and Emotion, 7,* 561-570.

Nolen-Hoeksema, S., Morrow, J., & Fredrickson, B. L. (1993). Responses styles and the duration of episodes of depressed m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20-38.

Nolen-Hoeksema, S., Parker, L., & Larson, J. (1994). Ruminative coping with depressed mood following lo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92-104.

Pyszczynski, T., & Greenberg, J. (1985). Depression and preference for self-focusing stimuli following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 1066-1075.

Rippere, V. (1976). Antidepressive behavior: A preliminary repor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4,* 289-299

Rippere, V. (1977). "What's the thing to do when you're feeling depressed?" A pilot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5,* 185-191.

Sakamoto, S. (1998). The preoccupation scale: It's development and relationship with depression sca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 645-654.

Sakamoto, S., Kambara, M., & Tanno, Y. (2001). Response styles and cognitive and affective symptoms of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1,* 1053-1065

Schmaling, K. B., Dimidjian, S., Katon, W. & Sullivan, M. (2002). Response styles among patients with minor depression and dysthymia in primary car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 350-356.

Smith, A. L., & Weissman, M. M. (1992). Epidemiology. In E. S. Paykel (Ed.), *Handbook of affective disorders* (2nd ed., pp. 111-129). New York: Guilford Press.

Teasdale, J. D. (1985). Psychological treatment for depression: How they work?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23,* 157-165.

Wood, J. V., Saltzberg, J. A., Neale, J. M., Stone, A. A., & Rachmiel, T. B. (1990). Self-focused attention, coping responses, and distressed mood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027-1036.

원고접수일 : 2005. 9. 13
게재결정일 : 2006. 10. 28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06, Vol. 25, No. 4, 1105-1121

Validation Study of Depressed Mood Response style Questionnaire(DMRQ)

Yoon-A Park
Department of Psychiatry
Boramae Hospital

Min-Sup Shin
Department of Psychia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Young-Ho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Depressed Mood Response style Questionnaire(DMRQ) and to examine its validity. This study was consulted to examine characters in a number of groups using different response styles and the influence of response style on the duration and the severity of depressive mood. The aim of study Ⅰ was to develop a scale to distinguish between functional and dysfunctional response style. Total eighty-item of preparatory questionnaire were selected from a number of response style questionnaires and were administered to 190 undergraduate students. This scale was consisted of problem solving response style, ruminative response style, mood avoidance response style, and mood regulation response style. The aim of study Ⅱ was to validate DMRQ by the study Ⅰ As a result of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t was fitted into four-factor model. As a result of the correlations analysis, the ruminative response style and the mood avoidance response style are correlated positively with depressed mood. The problem solving response style and the mood regulation response style are correlated negatively with depressed mood.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the group using both rumination and mood avoidance response style shows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depressed mood, Somatization, Anxiety, Obsessive-Compulsive, and Interpersonal Sensitivity than the low response group and the group using both problem solving and mood regulation response style.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after control the stress, the ruminative response style among those response styles explained the difference of depressed mood and mood regulation, problem solving, and mood avoidance response style didn't give any explanation.

Keywords : Depressed Mood Response style Questionnaire, problem solving response style, ruminative response style, mood avoidance response style, mood regulation response style